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 돌길이 묻혔어라  
 ㉡ 시비(柴扉)를 열지 마라 날 찾아 이 뉘 있으리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하노라 <제1수>

초목(草木)이 다 매몰(埋沒)한 때 송죽(松竹)만 푸르렀다  
 풍상(風霜)이 섞여 칠 때 네 무슨 일로 혼자 푸른가  
 두어라 저들의 성(性)이 어니 물어 무엇하리 <제3수>

㉢ 냇가에 해오라기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無心)한 저 물고기를 어찌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 같은 물에 있거니 잊어버린들 어떠하리 <제7수>

서까래 길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었거나 틀어졌거나  
 ㉤ 수간모옥(數間茅屋)이 작다고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나월(滿山蘿月)\*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제8수>  
 - 신흘, 「방옹시여(放翁詩餘)」 -

\* 만산나월: 산에 가득 자란 덩굴풀에 비친 달.

(나)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폐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公)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내었도다  
 앞 여울 덮어 얼어 외나무다리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萬古) 인물들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아라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과 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허유(許由)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 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어느 만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거문고 줄에 얹어 풍입송(風入松) 타자꾸나  
 손인동 주인인동 다 잊어버렸어라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경요굴: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었다는 달나라의 동굴.

(다)

자연은 기이한 빗깍을 소유하고, 인간은 그것을 빌려다 쓴다. 자연의 빗깍을 빌려 쓰는 사람 가운데 솜씨가 가장 모자란 자가 바로 ㉠ 비단 짜는 여인이다. 여인은 누에고치 실에서 가늘고 미끈한 것을 고른다. 낮이면 햇볕에 말리고 밤이면 달빛에 말린 뒤, 팔 힘을 뽐내며 복을 던져 날마다 몇 치씩 비단을 짠다. 그다음에는 꼭두서니와 쪽 물감으로 물들이는데, 그 현란한 빗깍이 사람의 눈길을 빼앗는다. 중국의 촉 땅 여인데 솜씨가 그중 제일 뛰어나다. 그러나 그 비단을 가져다 옷을 만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무튀튀하게 색깔이 바랜다. 만들기는 너무도 힘이 들건만 망가지기는 쉽다. 그래서 실 짠 여인은 괴롭기만 하다.

자연의 빗깍을 빌려 쓰는 사람 가운데 약간 약은 피를 가진 자가 바로 ㉡ 시인이다. 봄바람을 불러다 정신을 만든 다음, 밝은 노을로 꾸미고 향수도 뿌리며, 비취새의 깃털과 찰랑거리는 옥구슬로 갖가지 장식을 한다. 그 뒤에는 곱디고운 뱃속에서 시상을 찾아내어 부드러운 팔뚝을 휘둘러 시를 쓰되,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매끈하고 멋지게 시를 짓는다. 육조 시대 시인들의 솜씨가 제일 좋아,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명성이 시들지 않을 것만 같다. 그러나 제 심장을 토해서 시를 쓰고 나면, 영락없이 인간들은 시기하고 귀신들은 화를 낸다. 시를 잘 쓰기는 너무도 어렵건만 곤궁한 처지가 되기는 쉽다. 그래서 시인은 괴롭기만 하다.

그러니 그 누가 ㉢ 기원(綺園)의 주인보다 낫겠는가? 기원의 주인은 몇 이랑의 땅을 개간하여 이름난 화훼를 죽 심었다. 붉은색, 녹색, 자줏빛, 비취빛, 옥색, 담황색, 단향목색, 흰색, 얇은 못, 깊은 못, 성글게 심은 꽃, 뽐뽐하게 심은 꽃, 새로운 꽃, 묵은 꽃, 일찍 피는 꽃, 늦게 피는 꽃, 저물 때 피는 꽃, 새벽에 피는 꽃, 갠 날 피는 꽃, 비 올 때 피는 꽃 등등. 온갖 꽃이 찬란하게 어우러져 빗깍을 뽐낸다. 이렇게 진짜 정취로 진짜 빗깍을 대하므로 그 무엇과 우열을 다투겠는가? 그렇지만 주인은 화훼의 위치를 안배하고, 심고 접붙이고 물을 뿌리고 물길을 터주며, 흙을 복돋고 가지를 쳐내는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원 주인조차도, 명칭하고 완고한 ㉣ 들 늙은이가 한 해 내내 목 땀뻗하게 베개 높이고 누웠다가, 기원 동산에 꽃이 한창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연히 찾아가서는 온종일 마음 편하게 앉아 꽃구경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으랴!  
 - 이가환, 「기원기(綺園記)」 -

22.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 ⑤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있다.